



물놀이 튜브 “워터해먹” 자발적 리콜 시행

접착불량으로 인해 파손되는 결합발견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이디어 제품 개발 회사 “(주)바럽”이 판매한 물놀이 튜브 “워터해먹” 중 일부 제품에서 결합이 발견되어 국표원과 협의하여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.

* “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”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“수거·파기·수리·교환·환급·개선조치 또는 제조·유통의 금지, 그 밖에 필요한 조치”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함

이번 리콜조치는 “워터해먹” 제품 중 일부 제품에서 튜브와 그물사이 접착불량으로 설계 당시의 인장력(100kg)을 유지

하지 못하고 파손되는 결합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(주)바럽 측은 밝혔다.

리콜대상 제품은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출시한 모델 (WH-170) 약 1,500개 중 400개 제품으로, 해당 제품에 대해 결합을 보완한 제품으로 교환해 줄 계획이다.

해당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리콜 방법에 대해서는 동업체의 고객상담실(070-8650-6246)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(www.safetykorea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자발리콜 공표문

사업자명	주식회사 바럽	사업자연락처	070-8650-6246
제품명	워터해먹	상표	워터해먹
		모델명	WH-170
제조국	중국	조치사항	교환
제품 상세내용	2014년 6월 25일(제품 런칭일) ~ 7월 15일까지 구매한 모든 제품	리콜수량	400개
위해내용(관련기준)	· 제품의 외부 튜브와 내부 망의 결합부에 내구성 문제 발생 - 일정하중(약 100kg) 이하에서 파손됨		
사고사례	없음		

제품사진



〈전체 제품사진〉



〈조치 전 사진〉



〈조치 후 사진〉

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(043-870-5434)